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서 오방·석아·의재 조명

6월 1~2일 증심사지구 일원
세 인물의 생애와 정신 기려
5가지 테마 26개 프로그램도

광주 동구가 오는 6월 1~2일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인문For:rest'를 열고 오방 최흥종, 석아 최원순, 의재 허백련 등 3명의 인물을 조명한 다채로운 인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무등산에서 첫선을 보인 인문축제 '인문For:rest'는 숨 가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선현들처럼 무등산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쉬어가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지혜 산책, 예술 산책, 마음 산책, 자연 산책, 인문도시 산책 등 5가지 테마,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방 최흥종

석아 최원순

의재 허백련

올해는 무등산 아래 은거했던 인물인 오방 최흥종·석아 최원순·의재 허백련 등 세 인물이 남긴 생애와 정신을 기리고자 이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오방 최흥종은 광주 최초의 목사로, 무등산에서 나환자와 빈민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했다. 석아 최원순은 3·1운동의 발단이 됐던 2·8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펜으로써 일제에 항거했던 언론인이다. 의재 허백련은 남종화의 거장으로 무등산에 농업학교를 일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사랑하자'는 삼애(三愛) 사상을 가르쳤다.

이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중 첫 번째는 미션 투어 프로그램인 '인문결사대'다. 세 인물의 삶과 역사적 장소를 배경으로, 축제장 곳곳에서 미션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미션을 완료하는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두 번째 '인문 숲 투어'는 세 인물을 테마로 인문의 숲을 여행하는 인물 특정형 체험 투어다. 비움과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오방의 '비움 숲 투어', 허백련처럼 무등산을 그려보는 '의재의 그림 숲 투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석아의 글 숲투어'로 구성됐다.

'제2회 의재사생대회 무등을 그리다'는 의재 허백련 선생의 정신을 기리며, 무등산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나누는 시간이다. 어린이부와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58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마지막 '시간의 숲, 무등'은 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장소 특정형 연극으로, 세 인물이 살았던 과거의 시간으로 들어가 이들이 젊은 날 가졌던 고민과 생각들을 만나보는 '시간여행' 콘셉트의 공연 프로그램이다.

세부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인문축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문도시기획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오방·석아·의재가 보여주었던 나눔의 삶은 '등급이 없다'는 無等(무등)의 정신 그 자체다"면서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에서 선보이는 세 인물의 테마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치매봉사 '기억해온단' 발족
서구, 치매안심마을 정서지원

광주 서구는 지난 14일 치매안심마을 자원봉사단 40명으로 구성된 '서구기억해온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기억해온단'은 치매안심마을(상무2동, 풍암동)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생활공간을 순회한다. 인지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치매인식개선 활동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보조 △치매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연계 등 다양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는 봉사자들이 치매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16~17일 인지정서지원전문가 1급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치매전문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산정공원 농협 맨발길' 개장
광산구, 농협광주본부 후원

광주 광산구는 최근 월곡동 산정공원에서 '농협 맨발길'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맨발길'은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 광주본부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5000만원을 후원하면서 조성이 추진됐다.

광산구는 마사토로 된 맨발 산책로 50m, 황토탕 140㎡를 조성하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을 마련했다. 겨울철 이용을 위해 온열 의자도 설치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산정공원 농협 맨발길이 건강을 위한 시민의 맨발 걷기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제287회 임시회 개회
광산구, 22일까지 안건 심사 등

광주 광산구의회는 16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8건, 일반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광산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만주 의원)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영선 의원) △광산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총 11건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갖고,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활동에 나선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김상철 기자

광주 남구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광주 남구 제공

남구,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 실시
관내 40~80세 1인 가구 대상
복지 담당자 각 가정 방문 조사

광주 남구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도 많기 때문이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남구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아 기자

북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고령 친화 평생학습 사업' 선정

광주 북구는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주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북구의 '고령 친화 평생학습 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령층 인생 경험과 지혜 등 노년의 삶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는 '삶 담화집'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오는 28일부터 8월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운영된다.

여성과 남성 과정이 각각 개설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풍경채 작은도서관에서 여성 대상 '영숙씨의 집들이' 과정이 북구문화의집에서는 남성 대상 '영수씨와 산책길'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16일까지 북구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수강 신청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 협약
서구, 청년 창업가에 무상 지원

광주 서구는 지난 13일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스타트업센터는 청년들의 초기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청년 창업가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기업이 고유의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을 무상임차하고 있다. 입주 후에는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창업 지원시설을 무상 제공한다.

올해 입주기업은 △인터뷰 전문미디어를 개발하는 뉴웨이브협동조합(대표 차대헌) △폐현수막 활용 ESG캔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NID(대표 강지장) △식물성 단백질 활용한 카이막 파우더를 개발·제조하는 주식회사 콥프(대표 허민음) △중소기업 대상 외국인 취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워크피플(대표 김대일)이 신규 선정됐다. 레일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모듈랩(대표 박근용)은 실적평가를 통과해 입주기간을 연장했다.

서구는 1년간 입주기업에 공간 제공과 더불어 맞춤형 창업상담, 세무·회계, 입찰, 브랜드 마케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스타트업센터 안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 가고 성공하는 서구의 스타기업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